

‘민주주의’라면 다 좋은 걸까... 인류를 사로잡은 사상들

공화주의, 계몽주의, 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아나키즘, 포퓰리즘...

위의 열거한 내용은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사상들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인류의 의지와 희망은 다양한 사상으로 발현돼 왔다. 고대 그리스의 공화주의부터 오늘날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매혹시킨 사상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토마스 모어가 주장했던 유토피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향'은 사람들의 머릿속이나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역사상 많은 사상들은 당대를 풍미했고,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졌다. 특정 사상이 출현했던 당대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작금의 페미니즘, 생태주의가 부상한 것도 이들 사상이 인간의 욕망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를 매혹했던 사상들을 32가지 '이즘'을 정리한 책이 출간됐다. '철학 역사를 만나다',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의 저자인 안광복 박사가 펴낸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은 인류를 이해하는 또 다른 시선으로서의 사상을 조명한다.

저자는 제정 러시아의 파계 수도자였던 라스푸틴을 예로 들며 사람들이 왜 특정 사상에 경도되는지를 설명한다. 라스푸틴은 혈우병을 앓던 황태자 알렉세이의 병세를 호전시킨다. 우연찮게 기도를 받고 난 뒤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그는 알렉세이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막강한 권세를 휘두른다. 그의 입맛에 따라 장관이 수시로 교체됐고, 동시에 온갖 추문이 공정에 떠돌았다.

지난 정권 실세로 통했던 우리나라의 '최순실'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최순실 사건'은 최고 권력자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

안광복 지음

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전횡을 일삼았던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물론 무능한 데다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던 통치자의 탓도 크지만) 어찌 됐든 비선 실세의 전횡은 제정 러시아나 우리의 박근혜 정권이나 국가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낳았다.

"우리의 마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상'에도 못지않게 이끌린다. 20세기 말, 사회주의의 진영은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공산주의를 믿던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애써 외면했다. 이 모두는 간교한 자본가들의 속인수일 뿐이라고, 일시적인 혼란이 지나고 나면 행복한 사회주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이처럼 사상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묘한 마력을 지니고 있다. 사상은, 심오하고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닌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한 욕구와 욕망에 다름 아니다. 저자는 공화주의에서 사회 민주주의, 낭만주의와 신자유주의, 관료주의에 이르는 32가지



프랑스 대혁명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철폐하기 위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시민 혁명이었다. 그림은 드라마의 '최상의 존재를 위한 축제'. (사계절 제공)

정치·경제·철학·예술... 인류 사회 이끌어 온 보이지 않는 힘

공화주의·포스트 모더니즘 등 32가지 사상·이념 쉽게 소개

대표 사상들의 흐름 따라가며 우리가 꿈꿔 온 희망 성찰

대표 사상의 흐름을 조망한다.

정치적 측면뿐 아니라 철학 예술이라는 테마로도 사상을 들여다본다. 낭만주의, 니힐리즘, 실존주의, 구조주의, 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주의 리얼리즘 등 불안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고안했던 사상도 분석한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에게 금과옥조로 이해되는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민주주의는 모두 좋은 면만 있을까.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평등하게 존중받는 민주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

러나 다양성의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잠재돼 있다.

여기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민주주의'들이 생겨나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적지 않았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인민 민주주의',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 민주주의', 자유와 경제에 방점이 놓인 '자유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복잡한 이해관계, 역학관계에 따라 사상은 이렇듯 다르게 쓰이고 적용된다. 어느 때보다 비판적 수용이 요구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상은 인류 역사를 이해하는 또 다른 시선 가운데 하나다. 역사적 사건과 당대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태동했기에 현재의 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프리즘인 것이다.

저자는 "허공에서 떨어지는 사상은 없다. 모든 생각들은 서로 비판하고 협조하며 발전하곤 한다"며 "소개한 32가지 사상들이 독자의 영혼 속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잠신한 해안을 열어주길 기원해 본다"고 밝혔다. (사계절·1만7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조근조근 제주신화 1~3

여연 외 3인 지음

제주에는 특이한 이사 풍습이 있다. 물과 달리 '신구간'(新舊間) 기간에 맞춰 이사를 하는 것이다. 신구간은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 사흘전 까지 7-8일 동안이다. 제주 토박이들은 이때를 1만8000여 신들이 모두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한 해동안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내려온다고 믿는다. 그래서 신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사나 집수리 등 평소 금기시 하던 일을 해야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또한 마을마다 성소인 신당을 갖고 있다.



제주에서는 신들의 이야기, 신화(神話)를 '본풀이'라고 한다. '신의 본(本)을 풀이 낸다'는 의미다. 거친 바다와 척박한 땅에 맞서 살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에게 신과 곳은 생활의 일부였다. 덕분에 제주 고유의 곳은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조근조근 제주신화'는 3권에 제주에 전승되고 있는 16편의 신화를 담았다. 첫권은 '우리신화로 배우는 문화창조 이야기' (여연), 둘째권은 '우리 신화로 배우는 삶과 사랑 이야기' (신예경·문희숙), 셋째권은 '우리 신화로 배우는 운명과 도전 이야기' (강순희·여연)라는 주제로 나눠 수록했다.

국어교사인 저자들은 천지창조를 한 '천지왕'을 비롯해 아기를 점지해주는 '삼승 할망', 창조와 여신 '설문대' 등 제주 신화를 차근차근 독자들에게 들려준다.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은 어려서부터 동화나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채널로 그리스·로마 신화를 읽어왔다. 하지만 정작 제주신화는 잘 알지 못한다.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제주신화는 나아가 전세계를 무대로 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도 창작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바탕으로도 충분하다. (지호출판·각권 1만4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땅의 문명

남영우 지음

땅은 문명을 만드는 자궁인 동시에 문명을 담은 그릇이다. 하지만 어떤 땅은 문명을 잉태했고, 또 어떤 땅은 그렇지 못한 불임의 상태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문지리학자인 남영우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근 펴낸 '땅의 문명'은 이에 대한 답으로 문명이 땅의 생김새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지리학적 시각에서 볼 때, 문화와 문명은 땅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런 당연한 사실들 속의 중요한 부분들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선사시대에 다양화를 촉진한 것은 자연환경의 차이였고, 그 이후는 각각의 문명이 지닌 창조력이 새로운 다양화로 가는 원동력이었다. 이같은 땅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연구하는 분야가 지리학이며, 따라서 인류문명의 메커니즘은 다른 아닌 지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리학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연구를 향한 집념으로 30여 년간 세계를 누비며 기록을 이어온 저자는 이 책에서 '땅'에 따른 인류문명 발생의 메커니즘과 그 인과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준다. 지역에 얽매이지 않는 문명과 기술의 전파가 미래문명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반대로, '땅'이 바로 문명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는 그의 주장은 흥미롭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많은 사진과 지도를 실었으며, 더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독자들을 위해 참고문헌을 세세히 수록한 저자의 친절함이 엿보인다.



<문학사상·2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비커밍

미셸 오바마 지음·김명남 옮김

"내가 어렸을 때 누가 날 키워줄까 걱정했다면, 오늘날 미국 대통령과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2009년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만큼 그의 부인 미셸 오바마도 주목을 받았다. '비커밍'(Becoming)은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의 첫 자서전이다.

'흑인', '여성', '가난'이라는 꼬리표는 그의 젊은 시절을 늘 따라다녔다. 특유의 성실함과 승리욕을 지녔던 미셸은 우등생으로 공부하고 일류 법률 회사인 시들리 앤드 오스틴에 변호사로 취직된 뒤 그곳에서 버락 오바마를 만났다.

미셸은 버락과의 사내 연애와 결혼, 그리고 임신에 얽힌 일화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던 내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는다. 버락이 뜻밖에 정치적 인기를 얻고 결국 대통령이 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후 미셸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단지 퍼스트레이디라는 아름다운 꽃으로 남길 거부하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다.

백악관에 입성한 미셸은 전 세계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일했다. 그는 아동 비만과 전쟁을 벌였고 건강한 식탁을 만들기 위해 식품회사들과 싸웠다. 전 세계 소녀들의 교육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흑인 여성에 대한 편견에 당당하게 맞섰다. 대중과 친근해지려는 노력도 계속됐다. TV 쇼에 나가 펑크뮤직에 맞춰 춤을 추고, 차 안에서 비운세의 노래를 불렀던 그녀는 이제 수많은 배척과 질투, 뿌리 깊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다. (웅진지식하우스·2만2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완적완선 특수물질 가공
별다른욕각형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